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1991. 6. 24

申 相 振(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1. 韓·中關係 現況	4
가. 非政治的 關係	5
나. 政治的 關係	6
2. 中國의 對韓政策 : 持續要因과 變化要因	7
가. 持續要因	7
(1) 北韓과의 紐帶關係	7
(2) 中國의 分斷現實	9
(3) 中·美關係의 惡化	10
나. 變化要因	11
(1) 國際秩序에 대한 認識의 變化	12
(2) 國內 政治·經濟的 要因	12
(3) 韓國의 積極的 北方政策	14
3.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15
가. 經濟協力 展望	15
나. 統一問題 展望	16
다. 修交 展望	17
4. 韓國의 考慮事項	19

빈 면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현재 韓·中 양국은 이미 經濟·文化·스포츠 등 非政治的인 分野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관계의 進展을 이룩했으나 정치·외교關係 正常化의 達成에는 아직도 장애요인들이 尙存하고 있음.

韓·中 사이의 國交正常化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은 中國과 北韓의 紐帶關係와 中國 자체의 分斷現實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中·美間의 관계악화도 역시 韓·中관계의 증진에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최근 동북아 질서의 혁명적 변화, 中國의 대내외정책 수정 그리고 韓國의 적극적 北方政策에 따라 韓·中관계는 과거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상호의존적 관계에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향후 韓國과 中國의 경제협력 전망은 韓國의 적극적 北方政策과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이 맞물려 낙관적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中國은 韓半島의 統一이 中國에 미칠 안보적 위협상황과 東北亞에서의 세력균형을 파괴할 가능성을 우려, 기본적으로 南·北韓間 現狀維持를 희망하고 있음. 中國의 이와 같은 인식은 당분간 韓半島의 統一 實現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강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中國은 統一韓國의 등장을 수용하는 「以夷制夷」 정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韓·中 修交의 가능성은 南·北韓 關係의 진전과 北韓과 美·日 關係의 발전에 따라, 그리고 中國에서 새로운 實用主義的 指導者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 점차 제고될 것인 바, 북한의 UN가입 의사 표명과 핵사찰 수용 발표 그리고 북한의 對美·日 關係改善 시도 등 최근 한반도를 위요한 주변환경의 변화는

韓·中 修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中國과의 修交를 앞당기기 위해 향후 韓國政府는 과거 北韓에 대한 敵對的 政策에서 탈피, 南·北韓 平和共存體制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中國으로 하여금 韓國과의 關係正常化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北韓이 한국의 정치적 실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韓國政府는 또한 향후 다가올 韓·中 關係正常化 이후 파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中國과의 교류·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간 우호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統一 韓國이 결코 中國의 安保에 위협요소가 되지 않을 것임을 중국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 韓·中關係 現況

- 韓國은 中國을 도외시 하고서는 國家安保를 維持하기 어렵고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곤란하다고 認識, 1980년대 초 이래 中國과의 關係改善을 적극 摸索해 왔음.
- 中國도 對內經濟的 必要와 國際秩序의 變化에의 能動的 對處를 위해 1980년대 이후 韓國과의 關係를 꾸준히 發展시켜 오고 있음.
- 이에 따라 韓·中 兩國은 이미 經濟·文化·스포츠 등 여러 分野에 걸쳐 刮目할 만한 交流를 進行하고 있음.
- 그러나 中國은 政治적으로는 北韓과의 關係를 考慮하여 韓國과 劃期的인 關係의 進展을 주저하고 있음. 現在까지 中國의 對韓 政策은 所謂 「政經分離原則」을 고수하고 있음.¹⁾

1) 등소평은 최근 중국의 대한관계는 기본적으로 「수교는 기다려야 하고 경제무역관계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세계일보」, 1991. 6. 7.

가. 非政治的 關係

- 韓·中 양국은 經濟的으로 相對方을 중요한 파트너로 認識하고 있음.
 - 中國은 1978년 이래 推進하고 있는 四個現代化를 성공적으로 達成하는데에 先進國의 資本과 技術이 絶對적으로 必要하다고 判斷함. 權威主義統治體制下에서 고도의 經濟成長을 이룩한 韓國의 經濟發展 經驗과 資本·技術에 대해서도 상당한 關心을 기울이고 있음.
 - 韓國은 中國의 거대한 잠재적 市場과 中國의 풍부한 天然資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韓國이 展開하고 있는 北方政策과 中國이 추진하고 있는 對外開放政策의 영향으로 韓·中 양국간 經濟交流가 급진전되고 있음.
 - 1988년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양국간 經濟協力 關係는 과거의 단순 間接交易 등 貿易去來 중심의 交流에서 점차 直接交易과 合作投資 등 資本·技術交流 단계로 이행되고 있음.
 - 1988년 말 부터 施行된 中國의 經濟調整政策과 1989년 6. 4 天安門사태 등으로 인해 1989년부터 兩國間 經濟交流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음(부록 1을 참조).
 - 그러나 1990년 10월 韓·中 兩國은 상호 貿易代表部의 설치에 合意하였으며, 이를 契機로 兩國은 새로운 次元의 經濟協力 時代를 맞이하게 됨(1991년 1월 大韓貿易振興公社 駐北京代表部 개설, 1991년 4월 中國國際商會 駐서울代表處 개설).
- 文化·스포츠 分野에 있어서도 韓·中 양국은 1980年代 이래 頻繁하게 交流를 進行하고 있음. 韓·中 양국에서 開催된 各種 국제회의에 상호 代表團을 파견하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 中國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며, 1990년 北京 아시안게임에 韓國이 참가하는 등 文化·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한 接觸을 진행중임.

- 1991년 7월, 한·중 양국은 코치교환, 상호 전지훈련, 스포츠 과학 정보교환에 관한 議定書를 채택, 상호 직접적 체육교류 실시에 합의하므로써, 쌍방간 직접적인 人的·物的交流를 가일층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韓·中의 이와 같은 非政治的 분야에 있어서의 활발한 交流·接觸은 양국간 상호 理解와 友好增進에 심대한 影響을 주었음. 現在 韓·中 양국은 상대방을 敵對關係로 認識하기 보다는, 相互 協力·依存關係로 看做하고 있음.²⁾

나. 政治的 關係

- 이와 같은 非政治的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關係增進에도 불구하고, 韓·中 양국은 여전히 政治·外交 분야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中國이 北韓과의 同盟關係를 고려하여, 韓國과의 政治關係 正常化를 遲延시키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韓國政府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北方政策과 東北亞 國際秩序의 변화 그리고 中國의 國際秩序에 대한 態度 變化로 인해, 韓·中 양국간 政治·外交的 關係수립이 점차 可視化되고 있음.
 - 1983년 5월, 中國民航機 사건의 처리를 위한 公式 接觸이래 韓·中 양국의 政治的 交流가 시작되었음.
 - UN과 美·日을 통한 韓·中 양국간 直·間接 接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2) 비정치적 행사에서 「大韓民國」 또는 「中國」이라는 正式 國號를 상호 사용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음. *Korea Herald*, July 6, 1991.

- 劉華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991년 4월 ESCAP총회 참석차 韓國을 방문함.
- 1990년 10월 「貿易代表部」 교환설치에 합의, 상대방 수도에 貿易代表部를 설치하므로써, 양국간 관계정상화를 향한 기틀을 구축함.

2. 中國의 對韓政策：持續要因과 變化要因

가. 持續要因

東·西 冷戰體制가 종식되었고, 東西獨이 統一을 달성하였으며, 蘇聯이 韓國과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등 國際政治 秩序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中國은 여전히 韓國과의 관계정상화를 遲延시키고 있음. 中·北韓間 紐帶, 中國 자체의 分斷現實 등이 그 주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1) 北韓과의 紐帶關係

- 韓·中間 政治關係 정상화에 있어서 北韓의 態度가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中國은 地政學的 요인과 歷史的·文化的 유대관계로 인해 지난 40여년동안 北韓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
 - 더욱이, 中國 최대의 산업지대인 滿洲地域이 蘇聯 및 北韓과의 國境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中國 指導者들은 北韓이 中國에 대해 敵對政策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安保 課題라고 판단하고 있음.³⁾

3) 중국은 한반도와의 관계를 「唇亡齒寒」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북한과의 血盟關係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

- 과거 中國과 蘇聯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못했을 때, 中·蘇 양국은 北韓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北韓에게 경쟁적으로 외교적·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전개해 왔음.
 - 蘇聯에 비해 열악한 군사력·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中國으로서는 蘇聯과의 對北韓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立場에 처하여, 상대적으로 北韓의 立場을 더욱 두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中·蘇의 競爭에서 優位를 점하려고 하였음.
- 또한 鄧小平, 楊尙昆 등 중국의 元老集團과 북한의 金日成이 지니고 있는 個人的 親分關係가 中·北韓間的 同盟關係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中國과 北韓은 현재까지도 革命 제1세대가 國家의 對內外 政策을 좌우하고 있는 바, 이들은 1930년대 中國 東北地域에서 抗日鬪爭을 수행했으며, 1950년대 초 中國은 韓國 戰爭에 참가하여 북한을 지원하였음.
 - 이러한 共同의 革命經驗은 中國과 北韓 關係의 修正에 있어 최대의 障礙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1989년 6월 天安門사태 이후 나타난 中國政治의 保守化 現象과 동유럽의 自由化는 中國과 北韓間的 理念的 結束을 더욱 強化하므로써, 韓·中間 外交關係 正常化를 遲延시키는 결과를 惹起하였음.
- 그러나 최근 中國 政治權力 構造의 變化 추세와 北韓의 UN 加入 및 핵사찰 수용문제로 인하여 中國과 北韓間的 이념적 結속이 다소 동요되고 있음.⁴⁾

4)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해 UN가입 및 핵사찰 수용 그리고 경화결제를 요구하므로써, 양국간의 유대관계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6, 1991, pp.15-16.

(2) 中國의 分斷 現實

- 統一課業의 달성은 韓·中 양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공통의 國家目標이며, 기타 어떤 目標보다도 더욱 절박하고 崇高한 價値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므로 韓·中 양국은 기타의 目標(經濟利益 追求 등) 달성을 위해 統一이라는 고귀한 國家目標를 포기할 수 없음.
 - 이러한 입장은 中國의 外交가 國內政治的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이데올로기가 중시될수록 더욱 강조되어 왔음.
- 1982년 이래 中國은 「一國兩制」를 中國統一의 기본 方針으로 公式 宣布하였는 바, 이는 北京政府가 中國을 대표하는 唯一 合法政府이며 臺灣은 中國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는 論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즉, 中國에서 두개 國家의 存在를 결코 認定할 수 없다는 主張임.⁵⁾
- 이러한 中國의 統一論理는 中國으로 하여금 韓半島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두개의 韓國을 인정하는데 주저하도록 하고 있음.
 - 과거 北韓·中 양국이 維持해 왔던 역사적·문화적·지리적인 밀접한 關係는 中國의 이러한 立場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만약 韓半島에 두개의 韓國이 존재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間接的으로 中國이 臺灣의 合法的 地位를 認定해 주게 되어 中國에도 두개의 서로 다른 實體가 存在하는 것을 認定하는 결과를 招來하게 될 수도 있다고 判斷해 왔음.
- 결국 中國은 國際的으로 韓國을 公式 承認하는 것을 꺼리고

5) 「瞭望」, 1984年 10月 15日, pp. 8-9 그리고 “李鵬總理暢談國內國際問題,” 「人民日報」, 1991年 6月 15日 참고.

北韓과 긴밀한 紐帶關係를 지속해 왔음.

- 中國의 이러한 立場은 1989년 11월 鄧小平의 평양 방문시 극명하게 表明 되었음.
- 鄧小平은 中國이 韓國과 民間貿易을 통한 交流를 지속할 것이나, 政治的으로는 韓國을 承認하여 두개의 韓國이 존재하는 사실을 認定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表明하였음.
- 統一政策에 대한 中國의 확고한 立場은 1989년 그레나다와 라이베리아가 臺灣과 修交하자 즉각 이들과 國交를 단절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났음.

(3) 中·美 關係의 惡化

- 天安門사태 이후 中國내 人權問題, 中國의 中東지역에 대한 武器販賣, 美國의 對中 貿易赤字와 最惠國待遇 延長問題 등 제반문제로 인하여 中·美 關係가 惡化되고 있음. 최근 中·蘇 關係의 정상화와 美·蘇의 협력무드로 中國의 戰略的 價値가 저하되므로써 中·美間에는 당분간 갈등관계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美國議會는 만약 中國이 人權彈壓을 계속하고, 中東지역에 대한 武器販賣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中國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철회할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음. 특히 美 民主黨은 次期 大統領 선거와 관련,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음.⁶⁾
- 그러나 美 行政府는 中·美 關係의 惡化가 두 나라에게 모두 이롭지 않다고 판단, 中國이 美 議會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의회는 最惠國待遇를 연장해 주는 방향에

6)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東亞日報」, 1991년 5월 12일 참고

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⁷⁾

－中國은 이에 대해 蘇聯·東歐·東南亞에 대한 訪問外交를 활발히 전개, 貿易 多變化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美國의 對中 압력을 內政干涉과 「和平演變」⁸⁾ 이라고 비난하고 있음.

○ 中·美 關係의 惡化는 東北亞 秩序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 및 韓·中 關係의 앞날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中·美 關係의 惡化는 韓國의 北方政策을 제약하는 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며, 中國과 北韓과의 紐帶關係를 더욱 밀착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나. 變化要因

과거 韓國戰爭을 통해 설정되었던 中國과 韓國間의 敵對的 關係는 東·西 冷戰體制의 종식과 東北亞 國際秩序의 혁명적 변화, 中國 對內外政策의 수정, 그리고 韓國의 北方政策에 따라 점차 相互依存 關係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

7) 미국 행정부는 만약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중국내 친미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중국의 친소화를 가속화하므로써 미·중 관계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Lawrence S. Eagleburger, "Don't Break America's Strongest Bridge to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1, 1991; 曾馳遊 "中美圍繞最惠國待遇交鋒," 「爭鳴」, 1991年 6月號, pp.44-45.

8) 중국은 이를 자본주의 국가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개하는 행위라고 설명함. 段若非, "堅持人民民主專政 反對和防止和平演變", 「人民日報」, 1991年 6月 5日

(1) 國際秩序에 대한 認識의 變化

- 최근 國際情勢는 실로 급변을 거듭, 冷戰體制가 종식을 곁하고 동·서간 和解·協力の 霧圍氣가 高潮되고 있는 바, 획기적인 事件들은 다음과 같음.
 - 1989년 12월 美·蘇 몰타 頂上會談에서의 冷戰體制 종식과 平和共存 선언, 1989년 5월과 1991년 5월 中·蘇 頂上會談, 1990년 9월 日·北韓 修交에의 原則的 합의 및 韓·蘇 修交, 1990년 10월 獨逸 統一, 1991년 3월 바르샤바 條約機構 解體, 1991년 4월 韓·蘇, 日·蘇 頂上會談 그리고 1991년 5월 北韓의 UN加入 意思 表明.
- 이와 같은 事態의 進展은 中國으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인 對外認識을 견지하도록 하는 要因이 될 수 있음. 國際秩序의 脫冷戰 氣流에 便乘하여 中國은 理念的인 고려보다도 中國 자체의 政治·經濟的 利益을 더 중시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中·蘇 會談과 日·北韓 修交交渉 그리고 韓·蘇 修交 등 韓半島를 圍繞한 周邊情勢의 變化는 中國으로 하여금 對韓半島 政策에 있어서 보다 많은 代案을 갖게 하였음. 즉 中·蘇 關係의 正常化로 인해서 北韓이 과거 지녔던 戰略的 價値가 상당히 감소되었고, 韓·蘇 修交와 日·北韓 修交交渉은 궁극적으로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 「北韓要因」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막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최근 東北亞에서 日本이 추구하고 있는 政治的 役割 강화 움직임은 中國으로 하여금 韓國과의 政治的 關係發展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促進要因이 될 수 있음.

(2) 國內 政治·經濟的 要因

- 과거 毛澤東時代 中國外交는 理念, 革命經驗 그리고 地政學

(國家安保)의 要素를 중시하였으나, 최근에는 國內政治와 經濟的 要因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天安門사태 이후 中國外交는 國內政治的 要因이 가장 중요한 決定要素로 登場하였음. 즉, 中國은 천안문 사태로 야기된 國內政治的 불안요소를 解消하는 問題를 최우선시 하게 됨. 그러나 四個現代化는 여전히 中國의 주요 국가목표가 되고 있어, 중국은 장차 「安定속의 改革·開放」을 적극 추진 할 것임.

- 天安門 사태 이후의 中國外交가 다소 閉鎖指向的 性向을 띄고 있지만, 經濟建設이라는 大命題는 거스를 수 없는 課題임. 특히 韓國의 1960년대와 70년대처럼 강력한 權威主義 體制下에서의 일관된 經濟成長 政策이 經濟의 安定的 成長에 큰 土臺가 되었던 바, 中國은 현재의 國內政治的 狀況下에서 과거 韓國이 成就했던 經濟成長의 經驗을 배우고자 함. 이러한 사실은 中國이 韓國과의 關係發展을 圖謀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또한 최근 中國은 改革派 지도자인 朱鎔基와 鄒家華를 부총리에 임명하고, 천안문 사태와 관련 肅清되었던 胡啓立, 芮杏文, 閻明復을 復權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므로써 개혁과가 다시 전면에 재등장하고 있음.⁹⁾ 이와 같은 中國 權力構造의 변화추세는 向後 韓·中 關係의 發展을 促進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判斷됨.
- 현재 中國 政治路線을 결정하고 있는 鄧小平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도 實用主義 政策은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수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도 중국의 對韓政策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豫測됨.

9) 최근 중국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 18, 1991. pp 12~13; 「朝鮮日報」, 1991년 6월 6일 참조.

(3) 韓國의 적극적 北方政策

- 1980년대 이래 한국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北方政策은 中·蘇 등 北韓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共產國들과의 關係를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北韓과의 對立關係를 平和共存體制로 전환하여 平和統一을 달성하는 데에 주된 目標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韓國은 蘇聯 및 동유럽 국가들과 정식 국교를 수립하였으나, 中國과는 아직 關係正常化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韓國의 적극적 北方政策과 中國의 개혁·개방정책 및 국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中國은 최근 韓半島政策을 修正하는 過程에 있는 것으로 思料됨.
 - 1990년 10월 韓國과 貿易代表部 개설에 합의, 현재 서울과 北京에 貿易代表部를 상호 설치하였음.
 - 投資保障 協定, 二重課稅 防止 協定, 中國의 對韓 差別關稅 廢止 등 韓·中 經濟協定에 관한 協商 진행중.¹⁰⁾
 - 北韓의 UN單一議席 加入 政策과 핵사찰 수용 거부에 대해 반대입장 전달하였음.
 - 92년부터 北韓과의 交易을 購償貿易에서 硬貨決濟 方式으로 바꿀 것임을 평양측에 전달함.
- 특히 최근 韓國은 北韓을 共存의 對象으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北韓도 美·日과의 關係를 적극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中國이 韓國과의 關係正常化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中國은 과거 韓·中 關係正常化의 先決條件으로서 南·北

10) 일반적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2중과세 방지협정 등 경제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원칙임. 만약 한·중간 경제협정이 금년 내에 체결된다면, 양국은 국교수립을 위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임. “한-중 무역협정 조기체결 가능성,” 『朝鮮日報』, 1991년 7월 5일 참고.

韓의 긴장완화, 교류촉진 등을 제시한 바 있음.

3.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가. 經濟協力 展望

- 향후 韓國과 中國의 經濟協力 전망은 한국의 적극적 北方政策과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이 맞물려 낙관적으로 판단됨. 최근 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낙관적인 展望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음.
 - 1991년 1월, 4월 韓·中 쌍방 首都에 貿易代表部 개설.
 - 1991년 4월, 5월 北京, 서울에서 개최된 貿易展示會에 상호 참가.
 - 1991년 중 韓·中 經濟協定 체결 전망 可視化.
- 현재 中國經濟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資本과 技術 그리고 經營技法인바, 이들은 한국이 어느 정도 中國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資産임. 특히 韓·蘇 修交過程에서 韓國이 蘇聯에게 제공해 준 經濟援助는 中國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하에서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는 中國은 과거 한국이 이룩했던 經濟成長 經驗을 도입하고자 함.
 - 한편 韓國으로서도 國內 景氣의 침체와 美國의 市場開放 압력에 직면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거대한 잠재적 경제파트너로서 中國을 지목하고 있음. 韓國은 中國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하여 中國과의 經濟關係 강화를 제2의 경제도약의 선결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국내 勞使紛糾로 인하여 生産能率이 점차 저하되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바, 中國의 값싼 勞動力을 활용하기 위해 對中國 투자의 필

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韓國의 對中國 投資現況은 부록 2를 참조).

- 또한 中國은 宇宙航空, 核, 로케트 등 尖端技術과 基礎科學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中國과의 技術協力을 통해 韓國은 막대한 研究開發費를 절감하고, 고도의 産業技術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임.

나. 統一問題에 대한 展望

- 기본적으로 中國은 韓半島의 統一이 자신에게 不利益을 초래할 것으로 認識하고 당분간 南·北韓間의 現狀維持를 選好하고 있음. 韓半島 統一에 대한 이러한 認識은 당분간 持續될 것으로 사료됨.
 - 韓半島의 統一은 韓半島에서의 勢力均衡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東北亞 秩序에 不安定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함.
 - 韓半島에서 강력한 統一國家가 출현하게 될 경우, 中國의 安保에 심각한 威脅要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認識함(실제로 1975년 越南의 統一이 中國에게 위협적인 결과를 야기한 바 있음).¹¹⁾
 - 최근 中國은 韓國의 UN加入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북한에 대해 UN동시 가입을 종용했던 바, 이는 두개의 서로 다른 韓國이 存在함을 中國이 間接적으로 認定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事例임.
- 그러나 中國 자신이 分斷國이라는 사실과 北韓과의 전통적 同盟關係가 中國으로 하여금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韓半島의 統

11) 中國의 이러한 견해는 1980년 1월 25일 당시 中國의 外交部長 黃華가 韓部會議席上에서 행한 「80년대 中國의 동북아 정책」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명백하게 표현된 바 있음.

- 을 적극적·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韓半島의 統一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現狀維持를 주장할 경우, 이는 간접적으로 中國의 조속한 統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北韓과의 血盟關係를 고려, 中國은 현재 聯邦制에 의한 韓半島 統一이라는 北韓의 統一政策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北韓은 점차 자신의 조속한 統一實現 보다 체제유지를 더 강조하는 추세인 바, 이는 향후 中國으로 하여금 韓半島의 現狀維持 政策을 公式化 할 소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막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日本은 최근 아시아 地域에서 政治的·軍事的 影響力 강화를 追求하고 있는 바, 이는 東北亞 地域에 있어서의 中國의 利益에 심대한 不利益을 야기할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음.¹²⁾ 이와 관련하여, 中國은 韓半島에 강력한 統一國家가 등장, 日本의 잠재적인 政治·軍事的 위협요소를 緩和시켜 주기를 바라는 韓半島 政策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 과거 韓國에 대한 日本의 植民統治 經驗을 고려할 때 만약 韓半島에 강력한 統一政府가 樹立될 경우 東北亞에서의 日本의 影響力 強化 企圖에 효과적인 牽制勢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判斷함.

다. 修交 可能性

- 향후 韓·中 修交 可能性은 南·北韓 關係의 進展, 北韓의 美·日과의 關係發展에 따라, 그리고 中國에서 새로운 實用主義

12) 中國의 일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東亞日報」, 1990년 10월 26일 참고.

的 指導者가 主導權을 掌握하게 될 경우 점차 提高될 수 있을 것임.

○ 최근 韓半島를 위요한 周邊情勢가 기본적으로 韓·中 修交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그 중요한 사건들은 다음과 같음.

－ 北韓의 UN加入 意思 表明과 핵사찰 수락 발표 :

北韓이 UN政策과 핵사찰에 대한 態度를 修正한 데에는 中國의 役割이 결정적인 要素로 작용했음. 北韓의 UN加入과 핵사찰 수락은 장차 北韓과 美·日 關係 改善을 촉진하는 契機가 될 것이며, 中國이 韓國의 UN 加入案에 거부권을 行使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韓國의 國家的 實體를 認定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될 것임. 또한 中國이 北韓에 대해 UN加入을 促求한 背景의 하나는 北韓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緩和시켜 가면서 韓·中 修交을 實現한다는 中國의 計算을 들 수 있음. 특히 최근 北韓은 韓國의 實體를 認定하는 方向으로의 政策轉換을 摸索하고 있는 바, 이는 中國이 韓國의 政治的 實體를 認定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要因이 될 수 있을 것임.

－ 北韓의 對美·日 關係 改善 試圖 :

최근 北韓은 자신의 對外的 孤立 脫皮와 國內 經濟的 破綻 防止를 위해 美·日과의 關係 改善을 적극적으로 摸索하고 있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韓·中間 關係 正常化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韓·蘇 修交 및 中·蘇 關係의 發展 :

韓·蘇間 外交關係 樹立과 中·蘇 關係 正常化의 결과 北韓이 과거 享有했던 戰略的 重要性이 감소되었고, 이는 中國의 韓半島 政策에 보다 넓은 活動 空間을 提供해 주는 作用을 하고 있음. 이는 中國이 韓國과 關係 正常化를 추구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作用하고 있음.

一 韓·中間 經濟交流의 增大, 貿易代表部 개설 및 經濟協定 締結 推進 :

1991년 양국간 交易額이 50억 달러 規模로 增加될 것으로 豫測되고 있으며, 양국 政府의 公式 接觸 채널인 貿易代表部를 개설하는 등 韓·中 關係 正常化에 유리한 與件이 造成되고 있음. 더욱이 韓·中 양국은 今年 이내에 二重課稅 防止協定 및 投資保障協定 등 經濟協定 締結을 推進중에 있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國交樹立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져 왔으며 中國도 과거 外國과 國交樹立 이전 이러한 協定을 締結한 事例가 없었음을 생각할 때, 韓·中間 經濟協定 締結은 兩國關係 正常化를 한층 促進시키는 作用을 할 것임.

○ 中國과 北韓 모두 머지않은 將來에 指導者의 世代交替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展望되는 바, 이들 양국은 經濟發展을 위한 開放의 必要性을 절감하게 되므로써 보다 實用主義的인 指導者가 權力을 繼承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事態의 進전은 결국 韓·中 修交에 유리하게 作用하게 될 것임.

○ 결론적으로, 韓·中 修交에 있어서는 北韓의 반대와 中國 자신의 統一政策上 制約要素 등 先決課題가 여전히 存在하고 있으나, 上述한 몇 가지 긍정적인 要因들은 韓·中 關係 正常化를 促進하는 契機가 될 것임.

4. 韓國의 考慮事項

○ 中國이 韓國과의 關係를 正常化하도록 促求하기 위해서는 우선 北韓으로 하여금 韓國의 政治的 實體를 現實적으로 認定하도록 하는 措置가 필요할 것임. 즉, 北韓이 韓國의 實體를 認定, 두개의 韓國論理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는 中國이 한국과 修交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轉機가 될 것임. 따라서 韓國은 北韓에 대한 기존의 敵對的 政策에서 脫皮, 南北韓 平和共存體制構築을 위한 노력을 傾注하므로써 北韓의 態度變化를 先導的인 立場에서 誘導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北韓의 UN加入결정, 핵사찰 수용의사 표시 및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 등 최근 展開되고 있는 일련의 事態 進展은 韓·中關係 發展에 긍정적으로 作用하고 있는 바, 금년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계기로 한·중관계는 급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¹³⁾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向後 다가올 中國과의 關係 正常化 이후 派生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問題狀況에 對備해야 할 것임.

- 既存 外交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美·日·蘇와의 關係 再調整 및 強化方案 摸索

- 臺灣과의 關係 再設定 檢討

- 北韓·臺灣間 關係 正常化 可能性에 대한 對應策 立案

- 中國을 통한 北韓의 開放·改革 促求 方案 樹立

-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代替方案 講究

- 經濟的 協力關係 維持 및 強化

- 기본적으로 中國은 韓半島에서 강력한 經濟·軍事力을 保有한 統一韓國이 登場하게 될 경우 자신의 國家安保에 威脅要素로 作用할 것을 憂慮, 韓半島의 統一 보다 現狀維持를 더욱 希望하고 있음. 이에 對應하기 위해 韓國은 中國과의 經濟·文化·體育 등 諸般 分野에 걸쳐 交流를 強化하므로써 양국간 友好와 信賴의 霧圍氣를 造成하고, 統一韓國이 결코 中國의 安保에 威脅要

13) 금년 가을 중국이 한국의 UN가입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중국이 사실상 한국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素가 되지 않을 것임을 中國側이 納得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韓國은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의 지속적인 추진에 협조하
므로써 中國의 개혁과 지도층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들과의 연
계를 심화·확대하여 韓·中關係를 돈독히 하는 것이 中國과의
修交를 앞당기고 장기적으로 韓·中關係를 발전시키는데 기여
할 것임.

(부록 1)

韓·中 交易 推移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수출	4.0	115.0	205.0	48.0	51.3	229.0	602.8	715.0	813.2	1700.0	1438.0	1227.0
수입	14.8	72.9	147.8	80.8	82.6	232.6	609.8	680.5	673.4	1387.0	1705.0	1798.0
합계	18.8	187.9	352.8	128.8	133.9	461.6	1291.8	1395.5	1486.6	3087.0	3143.0	3025.0

자료 : KOTRA

※대중국 수출액은 직수출+홍콩정청 통계

(부록2)

對中國 投資現況

(단위 : 천달러)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누계
韓銀허가건수	1	2	1	6	14	41	65
금액	144	1,750	6,034	7,706	9,495	56,478	81,607
예비승인건수	-	-	-	-	8	5	13
금액	-	-	-	-	13,971	11,289	25,260
계	건수	1	2	1	6	22	46
	금액	144	1,750	6,034	7,706	23,466	67,767
							106,867

자료 : 국제민간경제협의회